

다시 읽은 “가난한 날의 행복”

중학교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글인데 그중 유난히도 한 구절은 잊혀지지 않은 채 있다가 우연히 잡지의 부록에서 짧지만 전 내용을 다시 대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읽으면서 중학생시절 국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의 이름 석자가 와 얼굴이 함께 떠오른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 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을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놓을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요.”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 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을 지켰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걸인의 찬... .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요.”

낮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30년만에 다시 읽은 글은 짝사랑만 하다 30년만에 만난 여학생을 시간이 많이 지난 후 기품 있는 중년의 자태로 변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30대 초반, 피곤에 지쳐있지만 착하다 착하게 내상상속에 그려졌던 글 속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늙지 않은 채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두 사람은 분명히 좋은 부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당연한 듯이 나눠줄 줄 알았던 아내에게 남편은 평생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며 남편의 처지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알았던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보다 빨리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혼부부처럼 이제 막 한 교회에서 만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씩 교회 기초를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에게서는 감동을 찾을 수 없습니다.

10월 한 달은 처음으로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를 갖습니다. 이미 배운 성도들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기초, 그것은 우리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읍시다” <b>City 한인교회</b>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1권1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 9월26일
☎262-3717/021-292-1639.☐229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노래방에 가도 되나요?

Q) 일반인들에게 노래방은 여가 선용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로 직장동료와 노래방에 가도 되는지요. 대부분이 일반 가요를 거기서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노래방은 여가 선용을 위한 곳이므로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데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고전 10:23)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있는 장소에 오셨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실까?’

또 한가지 질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나의 언행을 보고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약화될 것인가?’ 또 ‘나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지 않는 언행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공연히 했다. 그러지 말걸. 어린 성도들에게 부끄럽다’ 싶으면 안 하는 쪽이 덕이 됩니다. 일반 노래도 내용과 표현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과 음악적 표현이 저속해서 영적, 윤리적으로 해로운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자극한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문화라도 건전해서 인간의 아름다운 정서를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편적 은혜’에 속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주님과 항상 함께 거니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동료들과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의 신앙에 분명히 해로운 경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다니엘처럼 과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 영적 민감성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 주일예배

\*묵도  
Silence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송  
Hymn

29 장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1 (시 28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492장

기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6: 5 - 15

복음송가  
Praising

주일학교  
Sunday School

설교  
Sermon

가르쳐 주신 기도

설교후 기도  
Prayer

찬송  
Hymn

431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응답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위탁의 말씀

\*축도  
Benediction

오후 1:30

다 같이

인도자

다 같이

다 같이

서백화 권사

다 같이

아동부

김성국 목사

다 같이

인도자

다 같이

인도자

김성국 목사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앙: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1.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간에 School Holiday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 금주 구역예배.

장소: 서백화 권사 11 Nereus Pl. Mairangi Bay. ☎479-1898

시간: 7:30 pm

3. 10월의 구역예배는 기초성경공부(구원론, 성령론 4회)를 갖습니다.

기초성경공부는 우리 교회 교인의무과정입니다. 앞으로 4주동안 연속구역예배 모임에서 갖는 기초성경공부를 이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등록교우 회의

Tea Time 후 등록교우 모임을 갖습니다.

등록교우: 한 건, 지윤수, 김 효, 서백화, 최윤호, 송정섭, 최유나.

5. 교우소식

김경환 성도 부부. 5주간 호주에 연수교육차 오늘 출국. 자녀들(주경, 주하)과 성공적인 교육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6. 잊지 마세요

다음주일(10월 3일)부터 Daylight Saving이 시작됩니다. 미리 저녁 9시를 10시로 바꾸어 놓으세요.

7. 10월 예배위원

	안	내	기	도	헌	금	위	원
3	한	건	최	윤	호	한	건	
10	지	윤	수	서	백	화	지	윤
17	김	효	한	종	배	김	효	
24	서	백	화	송	정	섭	서	백
31	최	윤	호	지	윤	수	최	윤

8. 10월 교회력

\*Daylight Saving Time 시작 (3일)

\*교회창립 100일 기념주일 성찬예배 (24일)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 (매주 금요일 구역예배)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	도	헌	금	봉	헌	예	배	안	내	Tea	time	
5	서	백	화	김	효	지	윤	수	안	은	주	김	성
12	지	윤	수	지	윤	수	한	건	김	효	유	혜	경
19				김	정	훈	김	효	안	은	주	한	건
26				한	건	한	건	김	효	지	윤	수	